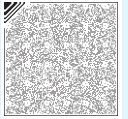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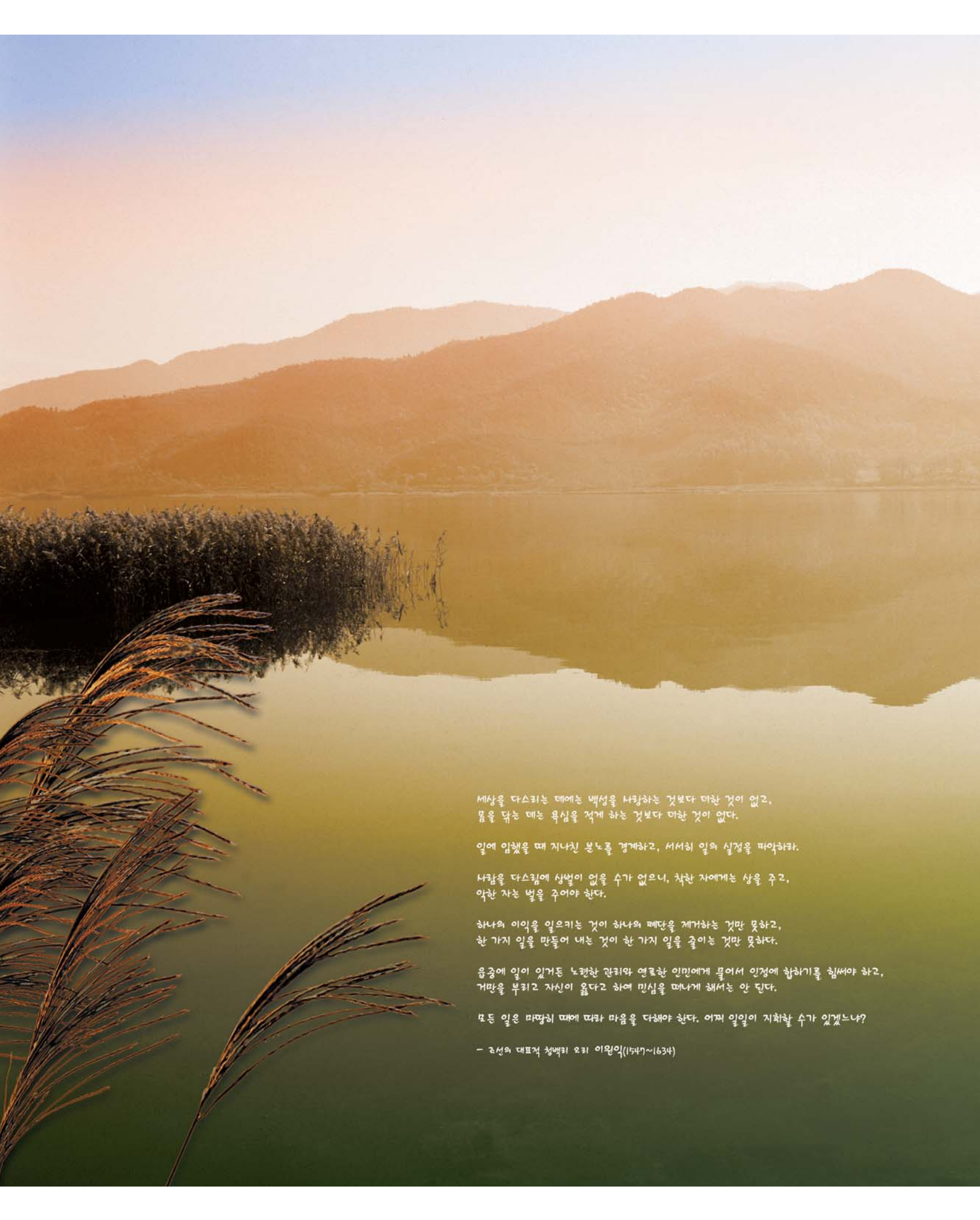
2008 | 9.10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느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에 임했을 때 지나친 분노를 경계하고, 서서히 일의 실정을 파악하라.

사람을 다스림에 상벌이 없을 수가 없으니,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야 한다.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

음중에 일이 있거든 노련한 관리와 연로한 인민에게 물어서 인정에 합하기를 힘써야 하고,
거만을 부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여 민심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마땅히 때에 따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어찌 일일이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

-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 오리 이원익(1547~1634)

2008 Vol.04

Contents

04 기획취재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6개월 무엇을 했나

행복한 사회

10 희망볼륨 up!

힘없는 소상공인의 편, 그대들이 있어 살 맛 납니다

12 해피투게더

0.1그램의 희망
- 전신마비 장애 딛고 강단에 선 서울대 이상목 교수

16 고충처리야화

가슴으로 쓴 편지

18 바로 이 사람

한바탕 '깡판 치며' 경종을 울려라
- 한국 연극계의 거성, 이윤택 감독

20 청렴예찬

젊은 청렴문화를 꿈꾸는 도시, 클린 부산

22 영어로 배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

즐거운 세상

24 즐거운 메시지

아... 행복한 대~한민국!

26 오감여행

영원한 스승이 머무는 다산유적지를 찾아서 - 강진과 남양주

30 트렌드 읽기

출판계에 파워 블로거에 집중하라, ब्ल록 열풍

32 생활법률 110

밀린 임금 제대로 보호받자!

34 해외 반부패 동향

2008년도 한국 청렴도(CPI) 40위, 전년보다 3단계 상승

36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억울할 때 두드리세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37 ACRC 카툰

온라인 국민신문고

38 Thanks Letter

해외에서 온 감사 편지

39 이달의 서평

평화의 얼굴

40 ACRC 소식

42 독자 코너

발행일 2008년 10월 1일(격월발행, 통권4호, 비매품) | 발행인 양건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편집 김덕만 | 주소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 | 전화 02-360-2725 | 팩스 02-360-2699 |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획·디자인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외부 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로 출범 6개월이 되었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없애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출범 6개월을 맞아, 지면을 통해 그동안 권익위의 성과와 각오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 더욱 국민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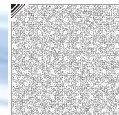
“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6개월 무엇을 했나





권익위 조사관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에서 민원을 냈는데 이렇게 해결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사는 이강숙 씨가 동네 주민 118명을 대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마을과 맞닿아 있는 삼성전자가 후문을 만들게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다. 하지만 이 씨의 생활터전이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신도시 내 ‘이주 택지’로 옮겨 ‘제2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다. 이들은 이주 택지로 옮겨 간 뒤 대부분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했다.

하지만 의외의 난관에 봉착했다. 유동 인구가 거의 없다보니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을로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없다보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화성시청에 찾아가 마을 쪽으로 삼성전자의 후문을 만들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출입문이 생기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 마을에 거주를 하거나, 식사나 물건 구입 등을 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시청의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어려움은 잘 알지만, 민간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매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절망의 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라는 공모제안 코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해결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마을주민과 화성시청 공무원, 삼성전자 담당자 등을 만나면서 점차 ‘희망’이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삼성전자 측을 적극 설득해 조만간 후문을 개방하기로 약속을 얻어낸 것이다. 삼성전자측은 공장 신축계획이 확정되면 후문 개방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성과 커

위의 내용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국민제안 공모’의 사례 가운데 하나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현 정부와 함께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8월 29일로 출범 6개월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 역할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이후 민원처리기간 단축,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적극 펼쳐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의 작은 불편도 바로 우리의 임무



새 정부 들어 민원접수 25% 늘어

지난 3월부터 8월 14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 3,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44건에 비해 25% 이상 증가했다. 지속적인 업무 개선 결과, 민원 인용률은 19.4%에서 20.7%로 증가했고, 평균민원처리기간은 33.3일에서 30.0일로 줄었다. 또 더욱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재결청을 폐지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처분청 이외에 상위기관인 재결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재결청을 폐지,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을 지난해 80.19일에서 8월 기준으로 72.5일로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불합리한 규칙의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정비작업을 해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행정규칙 1,005건을 면밀히 분석해 이중 94건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국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때 7층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 취락에 대해서는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했다. 어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서는,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되어있는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연장했으며, 부두의 유희선석(遊休線席)을 물동량이 많은 중량화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정비, 시대에 뒤떨어진 선박식별 신호포판(信號鋪板, 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연간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 1,000여 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탄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 입교식이 지난 8월 1일 권익위 청렴교육장에서 개최됐다.

1천 여 건 애로사항 접수 신속처리

그동안 권익위는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6월말까지 실시해 1,013건을 접수, 2건을 제외하고 1,011건을 처리했다. 정책제도개선 건의 77건, 제도개선 추진 27건, 시정권고의견표명 5건, 합의해결 59건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다문화가족·장애인 정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다문화가족 164건, 장애인 관련 19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컨설팅도 호평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경기도,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부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국제사회에도 한국의 청렴정책을 전수하고 있다.

국내외에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국민적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2008 클린코리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청렴 UCC공모전' '청렴 논술대회·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투명성 제고'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행복한 사회

희망볼륨 up!

해피투게더

고충처리야화

바로 이 사람

청렴예찬

영어로 배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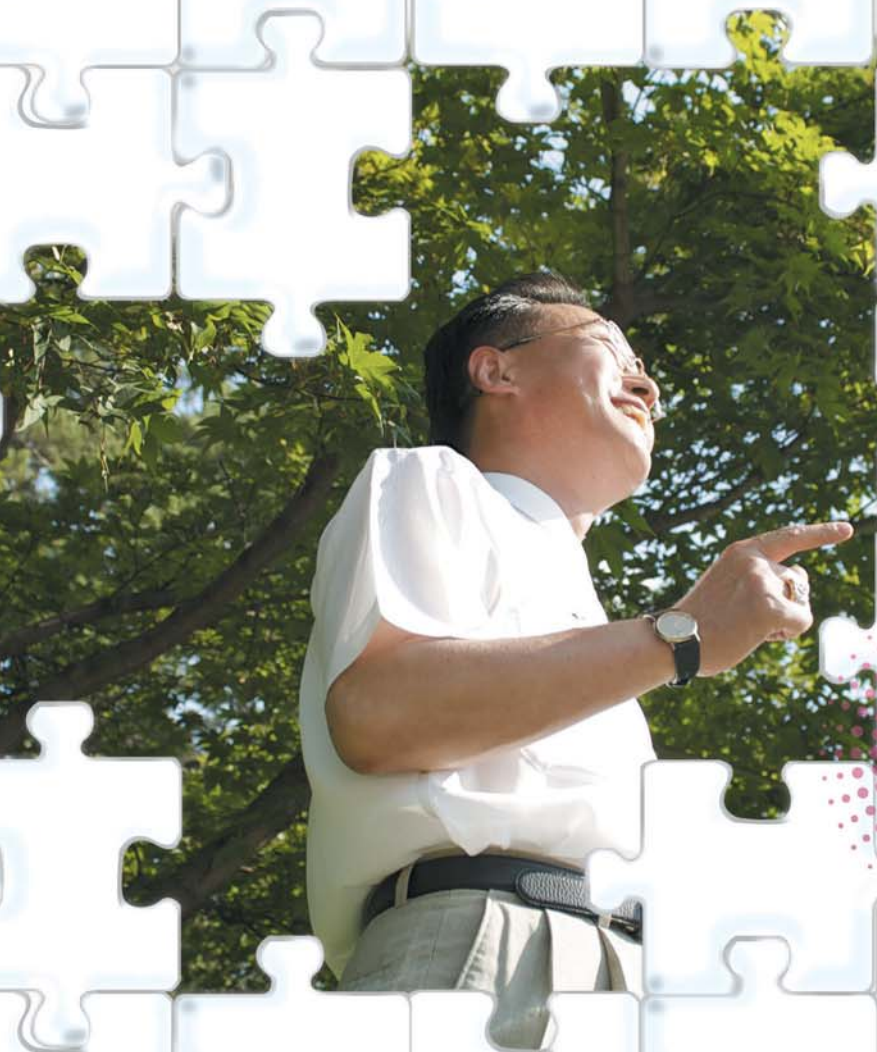
힘없는 소상공인의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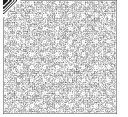
그대들이 있어 살맛 납니다!

| 글 박은수(가명, 게임기 제작업) * 사진 이은영

게임물 등급 심사부당 호소

자영업으로 청소년게임기 제작 및 유통업체에 몸담아 온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IMF 당시 부도직전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버티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이라는 신념으로 전 재산을 투자했다. 아내를 식당 종업원으로까지 내몰면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오락기 개발에 온 힘을 쏟아 온 것이다. 수많은 오락기가 있었지만,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오락기는 십만 분의 일도 되지 않을 만큼 국내 오락기 시장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노력을 거듭한 끝에 작년 5월, 어렵게 오락기를 개발해 냈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 후, 정식으로 등급결정을 받아 시판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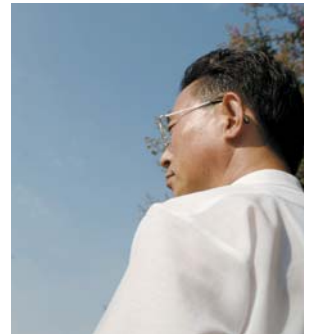
정식 시판을 앞두고 업계관계자 대상으로 시연회를 갖게 되었다.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었던 셈이다. 당시 시연회에서는 디자인 교체 및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왔으며,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외형의 일부와 기판을 2개에서 1개로 줄여 생산 비용을 30% 정도 낮추는 품질개선을 하게 되었다. 내용 및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시도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이 변경되었다”며 재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오락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게임물심사규정제22조에 의거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재심사에 응한 결과, 결국 등급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아예 오락기를 압수해 가버렸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었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변호사 살 돈도 없이 하루하루 잠도 못자며 고민하던 차에, 주변 상인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접수한다는 말을 듣고, 4월 28일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행정문화민원과 정태구 조사관을 만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권익위에 대한 박은수 씨(52세·서울시 장의동)의 수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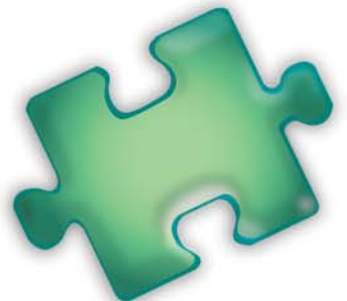
오락기 되찾아 준 조사관에 감사

정 조사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대면을 통해 나의 억울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해주었고,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나갔다. 그리곤 수일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득한 결과, 마침내 개발된 제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그토록 고대하던 시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란 말처럼, 7월에는 인천 경찰에서 오락기 외형이 변조되었다며 영장도 없이 압수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지 디자인만 좀 더 다듬은 것 밖에 없는데 또다시 벌어진 일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물론 게임물등급위원회조차 외면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매정하게 느껴졌었는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정 조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을 들은 정 조사관은 직접 경찰서와 게임물등급위에 수차례 법적하자가 없음을 설명하고, 외형수정 내용만으로는 재심사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 기관에 알리고 설득시켜 오락기 전체를 무사히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이번 사건이 내게는 큰 고난이었을지라도, 권익위에게는 여러 민원들 중 하나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재차 그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분들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

한번 처리된 민원임에도 재차 도움 요청을 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후에도 가족의 일처럼 나서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일로 이들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신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분들로 인해

삶의 희망을 얻었다



0.1그램의 희망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





2006년 7월 2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에서 지질조사를 벌이던 중 차량 전복사고를 당해 여학생 한 명이 숨지고 운전을 하던 이상목 교수는 중태에 빠졌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2일, 기적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이상목 교수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 '슈퍼맨'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0.1그램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며 마음의 철창에 갇힌 사람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 글 이정선 * 사진 신현진

전 신 마 비 장 애 딛 고 강 단 예 선 서 울 대 이 상 목 교 수



몸이 성하다고 항상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이상목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대 캠퍼스로 향하던 길, 급한 전갈이 왔다. 그의 손과 발 노릇을 해주는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집밖 외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 곧장 가던 길을 돌려 그의 자택으로 향한다. 전화를 통해 그가 직접 일러준 대로 찾아간 그의 집. 말끔한 정장차림의 이상목 교수가 전동침대에 누운 채 여학생 두 명과 이야기 중이다.

시애틀에서 유학중이라는 학생들은 이 교수의 소식을 접한 후 꼭 한번 만나고 싶던 차에 방학을 맞아 들른 것이란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며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에 실릴 만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를 하고 찾아왔는데 먼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정중한 그의 요청에 조용히 자

리를 잡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기로 한다. 갓 스무살, 굵이굵이 곡절 많은 삶과는 거리가 먼 여대생들이 묻는다.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의 심정은 어땠으며,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는지, 과거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지...'

약 한 시간동안 계속되는 여학생들의 물음에 이상목 교수는 시종 진지하고도 밝게 그러면서도 강한 어조로 대답한다.

"사고 났을 때 나이가 마흔 넷이었었는데 공부도 하고싶은 만큼 했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맘껏 하며 살았다 싶으니까 안타까울 것도 후회될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몸이 성하다고 항상 행복한건 아니잖아요?"한다. 순간 조금 더 좋은 직장도 조금 더 많은 돈과 조금 더 크고 넓은 집과 자동차를 갖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교정에서 만난 학생들과 인부를 주고 받는 일도 이상목 교수에게는 즐거운 일과다.



이상묵 교수는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보조공학 기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장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 취득, 아이슬랜드의 중앙해양^{海嶺}과 인도양에서 박사후 과정을 계속 공부한 이후 한국해양개발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역임. 완벽에 가까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가 갑자기 찾아온 '장애'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분히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다. 바로 첨단 IT기술로 만들어진 컴퓨터와 보조공학기구를 덕분이다.

미국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마우스를 활용하는 컴퓨터 장치를 소개받은 그는 전통휠체어, PC, 음성인식 프로그램, 입으로 작동하는 마우스 등 보조공학 기기를 통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강의준비도 할 수 있게 됐다.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세상과 소통하는 그의 삶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가 쓰고 있는 보조공학기구도 화제가 됐다. 그가 만사제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도 많은데 제가 나서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데 컴퓨터와 보조공학기구를 이용해 생활하는 걸 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들도 컴퓨터만 있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고대하며 기도와 기치로 등에 매달리는 장애인을 볼 때 가장 안타깝다는 이상묵 교수. IT기술에 힘입어 보다 의욕적으로 강의와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장치의 작동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들에 대하여 사고 직후 이상목 교수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의 자서전. 1995년 낙마사고로 척추를 다쳐 전신마비가 된 후 사재를 털어 척추질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든 리브의 삶에서 진한 감동을 얻은 이 교수는 장애인 재활과 복지를 돕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개발·보급하는 보조공학기기를 널리 알리는 '명예 보조공학 체험단'으로 위촉된 데 이어, 5월 문을 연 서울대 '장애인 의료장비 개발센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국내 최고의 공학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센터의 직원 가운데 그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니 경암학술상으로 받은 상금 1억 원 전액을 자신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쾌척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건우 교수다.

사고 이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열 개쯤 더 많은데 그 중 제일을 꼽으라면 바로 '사람' 이요. 그 중 첫손꼽는 이가 있다면 바로 이건우 교수일 것이다. 그 때 받은 1억 원으로 휠체어와 필요한 장비를 갖춘 미니밴을 마련하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든 이상목 교수는 9월초 발간한 자서전 <0.1그램의 희망>의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들의 '슈퍼맨' 을 위하여... 육체는 비록 꼼짝없이 갇혀있는 셈이지만 정신은 오히려 해방된 느낌이라는 이상목 교수. 그는 앞만 보고 내달리던 과거와 달리 삶의 여유를 찾았고, 고마운 사람들을 얻었으며, 수영을 하다 안되면 배드민턴을 치듯이 삶이 조금 바뀌었을 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 장애인들의 재활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겠노라는 그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슈퍼맨' 이다. 🌍

“

육체는 비록 꼼짝없이 갇혀있는 셈이지만
정신은 오히려 해방된 느낌

”



휠체어에 연결된 '입김으로 작동되는 마우스'를 사용해 보이는 이상목 교수



가슴으로 쓴 편지



필자가 공직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던 국가청렴위원회라는 옷을 벗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새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고충처리부 조사관이 되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된 셈이다. 늘 그래 왔듯이 공직자는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진정한 공복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달님이 고개를 내밀며 필자에게 뭐하느냐고 속삭이고 있을 무렵, 마지막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 민원의 주인공은 순영이라는 병사였다. 군에 입대한 이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먹을거리도 없이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져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애절한 내용의 편지였다.

| 글 김영일 권익위 고충처리부 조사관





위원회로 날아 온 사연



사연은 이러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순영은 작은 농장을 빌려 열심히 일하면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오붓한 삶을 살아 온 것이다. 반찬도 별 볼일 없지만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찾아와 농장을 팔아야겠으니 그만 나가 달라고 했다. 청천병력 같은 충격이었다. 당장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농장 주인에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농장을 이미 매각한 상태라 그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옆친데 겹친격으로 순영에게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 집안의 기둥인 순영마저 없다면 가족들의 생계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 동생도 어려운 사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

“하늘이시여!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 하나이가.”

정말 열심히 살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순영은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선 가족들이 기거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었기 때문이다. 급한 대로 우선 농장 주인을 찾아갔다.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만이라도 농장 뒤편에 오두막이라도 짓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며칠 후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가족을 길바닥에 두고 갈수는 없지 않느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농장주인도 그의 애절한 절규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지 창고로 사용하던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를 내주며 당분간 살아도 좋다고 했다.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비록 녹슬고 보잘 것 없는 가건물이지만 가족들은 그들만의 안식처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했다. 순영은 며칠 후 가족을 뒤로 하고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병인 고혈압이 발병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순영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다. 가엾은 어머니와 동생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샘이 말라 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신문고를 두드려 보기로 말이다. 그것이 순영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서다.

가족부양 위해 조기 전역 도와



그의 편지를 읽는 동안 필자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어떻게든 순영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힘이 닿는 대로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가족의 구성에서 어머니가 부양능력자이기는 하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을 앓고 있고, 동생도 19세미만이라 0:2의 부양비를 갖추고 있으니 생계 곤란 사유로 조기전역이 가능하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고 조기전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다. 필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처리해 보았지만 순영의 가족에 대한 의결서를 쓰면서 그렇게 콧등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따가워 본 적이 없었다. 군복무 중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순영의 애절한 사랑은 독자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심어 줄 것 같다. 그동안 순영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필자는 권익 조사관이니까. 푸하하하... 웃는 것도 시샘을 하는지 어느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댄다.

“따르르르릉”

“네, 감사합니다.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김영일 조사관입니다.” 📞

문화계릴라로 불리는 이윤택 감독은 하나의 장르로 범주화되지 않는, 아니 거부하는 전방위 예술가다. 연극 무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예술 영역을 오간다. 하지만 그의 술령대는 에너지는 예술 안에서만 꿈틀거리는 것은 아니다. 그의 내재된 야성은 이따금 대사회적 발언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은폐하려는 사회 아말로 절망적인 사회라 말하는 그는 위장된 평화를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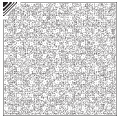
한국 연극계의 거성, 이윤택 감독

한바탕 **‘깡판 치며’**

‘경종을 울려라’

글 김미숙 * 사진 장병국





이윤택, 그가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획기적인 러닝타임 4시간 30분의 연극 <원전유서>가 그 배경이다. 관객들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긴 러닝타임과 40여 명의 출연진을 이끈 스케일이 큰 무대에는 그의 도전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극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짙다. 연희단 거리패의 단원이 쓴 시나리오의 주요 배경은 쓰레기 집하장, 번지수 하나 없이 소위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가치 없어 보이던 그들의 땅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땅이 되어간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돈, 버려진 휴대폰 속의 금이 문제였던 것이다. 정말 참신한 내용의 시나리오인데 논외 평가가 많아 그는 아쉽다.

“4시간 30분의 러닝타임이 부각되면서 정작 작품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보다는 외적인 것에 대한 평가가 먼저 돼 버려서 말이죠.”

간혹 그의 넘치는 정력은 대사회적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접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연극무대에서 더 신랄하다. 사실 그가 창작하는 작품은 문제작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른다. “그냥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객이 느껴서 문제작이 된 게 아닐까요.”

일인 다역의 배우와 같은 삶

그의 삶 또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신문기자, 우체국 공무원, 한일합섬 노동자, 그리고 시인, 극작가,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교수 등 일인 다역의 배우와 같은 삶이었다. 그는 실패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에 떨어지면서 다양한 배역들을 소화해 내기 시작했다. 물론 계층적 삶에 대한 차별성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학벌체계가 너무 공고하더라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구조였지요.”

하지만 그는 지원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자가 된다. 그가 기자를 하던 시절은 전쟁과 다름없었다. 80년 광주의 그늘이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었다. 끝내 그는 회사를 뛰쳐나왔다.

“기자를 하면서 비로소 말은 힘이 없구나, 무력하구나...를 느꼈어요.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선불리 자신을 규정짓는 말을 먼저 내뱉지는 않는다.

‘너는 어느 편이야’는 물음에 대하여

“뭐 저를 시대의 기회주의자, 엽기적 회색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회색도 색입니다.”

항상 어느 편이냐고 묻는 물음을 듣고 살아온 그는 예측불허의 삶을 살면서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제도권에 속하는 것을 가장 경멸

하던 그가 국립극단 단장을 맡았을 때는 드디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그냥 국립극단도 한번 개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패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잘 정제된 말로는 균형감각, 비판적 지식인쯤 되겠다.

“사실 제가 살아온 내역으로 보자면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전 어디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밀양연극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 밀양연극촌은 게릴라 연극인들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그래서 밀양연극촌의 문은 어느 곳보다 넓고 자유롭다. 시가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는 그는 지난해 시집을 내기도 했다. 시 역시 글을 넘어 다양한 형식으로 쓰는 이윤택 감독. ‘ing를 사랑한다’며 오늘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는 쉽게 지칠 것 같지 않다. 🌍

시인이자 극작가, 연극 연출가 등을 넘나드는 ‘문화게릴라’ 이윤택 감독. 부산일보 기자 등을 거쳐 1986년 부산가마골소극장과 연희단거리패 창단을 통해 연극계에 뛰어들어 이 감독은 <시민> <오구 죽음의 형식> <바보각시 사랑의 형식> <문제의 인간 - 연산> 등의 작품을 연출해 1990년대 실험연극의 기수로 떠올랐다.

젊은 청렴문화를 꿈꾸는 도시 클린 부산!

| 글 최미현 * 사진 신상은



부산시는 올해를 '투명행정, 청렴시정의 해'로 정하고 「부패제로Zero, 클린Clean 부산」 실현을 위한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렴안내자라는 의미의 '클린 셰르파Clean Sherpa'를 비롯, '청렴해피콜제도', '감사관 핫라인Hot-line', '클린 콜Clean call' 등이 그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내부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한 셈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의미의 청렴淸廉이라는 단어에는 부정부패, 비리 등의 부정적 단어도 연상되기 마련이다. 또 부정부패 등과 같은 이야기는 정치권 고위 공직자들의 이야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청렴제도 도입에 거부감을 느끼기 일쑤다. 이러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편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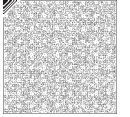
박영세 감사관은 부산시의 청렴제도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청렴문화 형성이라고 말한다. “청렴하라는 의미를 ‘부정부패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전달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상당히 제각각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청렴한 모습인지, 지금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시 청렴 시책의 출발입니다.”

고민 말고 상담하자, ‘클린 셰르파’

부산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클린 셰르파Clean Sherpa’. 클린 셰르파는 청렴안내자로, 조직 내 부당한 지시나 내부비리에 대한 고발 등에 관련된 상담 및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직사회의 특성상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하거나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직접 감사관실을 찾아 상담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클린 셰르파로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은 총 20명, 각 부서에서 신입이 두텁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추천 받아 선정했다. 이들과의 상담 및 신고를 원하는 직원은 편한 상대를 선택해 이메일, 전화,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해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셈이다.

“이 제도는 내외부에서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고발을 위한 실적보다는 청렴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하는 등 청렴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업무가 감사관실 고유의 일이 아니라, 직원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정 령 담당사무관의 설명에 현재 클린 세르파로 활동 중인 행정자치관실 유재 기 씨도 한마디 거든다.

“일을 하다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거리 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생겨 대환영입니다. 기존 부패신고가 고발의 느낌이 크다면, 이러한 제도는 편한 상담과 같 다고나 할까요. 밝은 직장 분위기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컨설팅 감사와 예방 감사로 청렴도 향상

클린 세르파가 주는 이점도 있지만, 같은 직원들끼리 신고하기 꺼려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직접 연결이 가능한 ‘핫라인(Hot-line)’을 시행 중이다. 격려와 동참을 의미하는 ‘337’ 박수와 부패율 ‘0’에 도전하자는 의미로, 번호는 행정번호 ‘3370’, 일반전화 888-3370이다. 번호 하나에도 의미를 담은 재치는 이것에서 끝나 지 않는다.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For 4, Four-SOS 505’의 의미를 담은 ‘4505’는 ‘클린 콜(Clean call)’ 번호. 클린 콜은 직무수행 시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전화만 하면 감사관실에서 금품을 접수받아 반환조치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또 직원들의 청렴도를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했다. 현재 청렴 해피콜은 우선적으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취약분야를 위주로 시행 중이다.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제도들. 이처럼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박영세 감사관은 “신고 내용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통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보다 넓힌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도 하나에도 직원들 개개인의 스타일과 여러 상황을 고려한 담당자들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클린시정 상담·신고센터에서 시 직원과 상담 중인 정 령 담당사무관

올해 부산시청의 클린시정 방향도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닌,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하는 직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하는 어드바이스와 정보제공을 위주로 일명 컨설팅 감사, 예방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침을 정하고 벌을 주기보다, 제대로 된 행동지침을 일러 주고 자연스러운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부산시청. 보다 젊고 긍정적인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라는 부정적 단어보다는 ‘클린’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있어 부산의 청렴은 오늘도 이상무! 이다. 🌱

“클린 세르파는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청렴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사관실의 클린 세르파들.
조 경 직원, 박근철 직원, 박영세 감사관,
정 령 담당사무관, 김종렬 직원(왼쪽부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

글 조재준 권익위 부패방지부 사무관 * 일러스트 양승용

김선생,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부임하시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지?

Mr. Kim. Do you know exactly when the new manager comes?

이 달 말이지. 그런데 왜?

It is the end of this month. Why?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축하의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떨까?

How about chipping in some money to buy a congratulation present for her?

생각해 둔 것이 있나?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시계 어때? 약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How about a watch? One worth about one hundred thousands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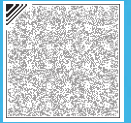
그건 금지되어 있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고
만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약 3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어.

I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 public official can't take any present from duty-related person and, if he can, only items worth less than 30 thousands won are acceptable.

행동강령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Does the code have those contents?





즐거운 세상

즐거운 메시지

오감여행

트렌드 읽기

생활법률 110

해외 반부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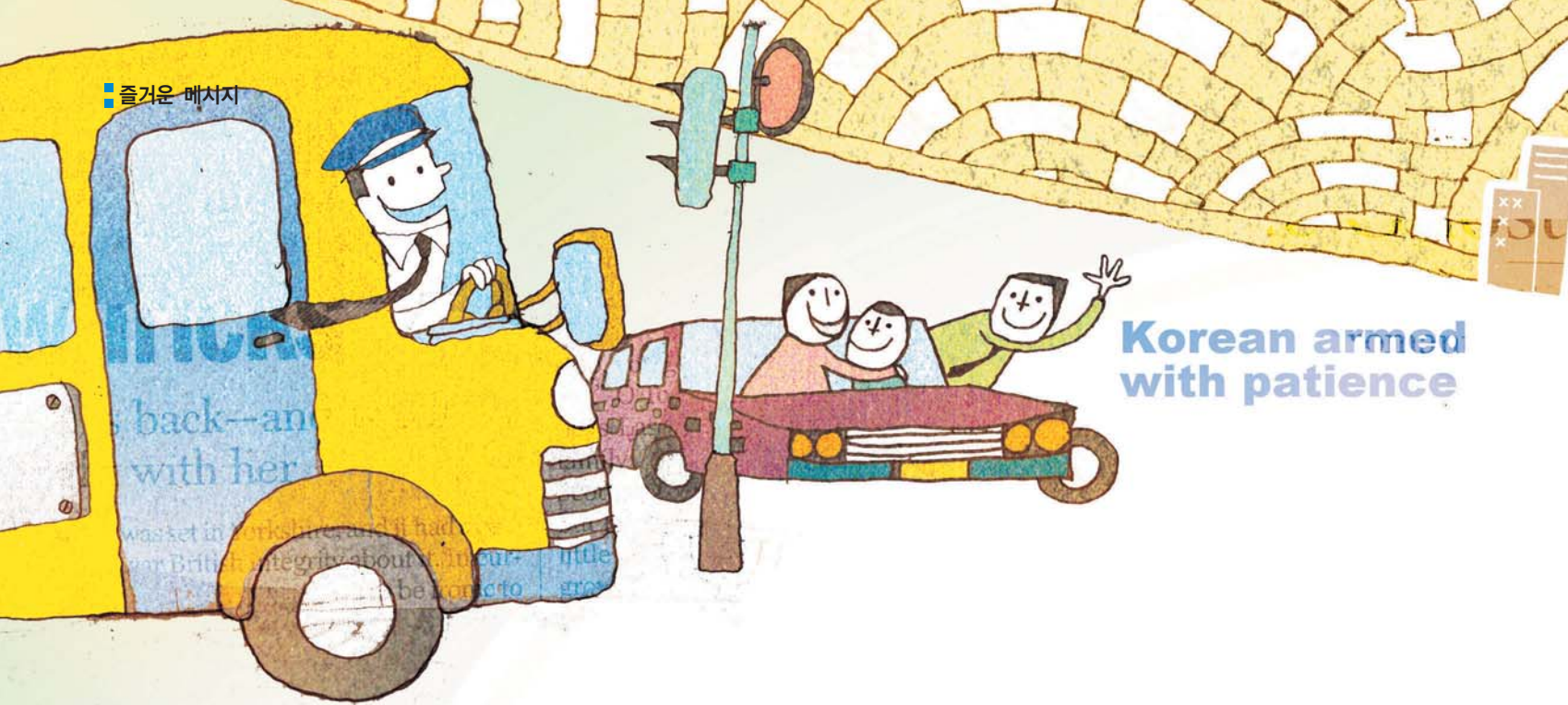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ACRC 카툰

Thanks Letter

이달의 서평





아... 행복한 대~한민국!

| 글 최윤희 행복디자이너 * 일러스트 홍종모

나는 공주과가 아니라 잡초과다. 그래서 강의를 다니면서도 대접받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한다. 렌터카 기사가 자동차문을 열어주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해서 단호하게 거부한다.

-제발 그런 거 하지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가 가끔 실소를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나는 운전을 못해서 개인적인 일로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지난 여름, 유가는 날마다 고공행진을 하는데 버스 안은 추위로 덜덜 떨어야 했다. 승객들은 추위로 찹소리하지 못한다. 혹시 운전기사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갈지자로 난 폭운전을 하면 어쩔 것인가? 자기 머리위에 붙은 에어컨 버튼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본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고장이 나서 먹통이다. 아무 소용없다. 승객들은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방긋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한국인의 공통 유전자인 '인내'라는 단어가 찍혀있다.

-참아내야 해요. 별 수 없어요.

어디 그것뿐인가! 라디오도 기사님 마음대로 크게 틀어준다. 귀가 아파도 묵묵히 들어야 한다. 간혹 정신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일용할 양식처럼 남남 받아먹어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파란 신호등이라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썩하고 달려가 버린다. 어이가 없지만 찹소리 할 수 없다. 복잡한 길거리까지 터억 들이밀고 나와 있는 염치없는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은 이제 도시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사람들은 묵묵히 비켜서 걸어간다. 극기자수 최상, 인내자수 뽕뽕한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극기훈련 중?

나는 지난여름 지나친 버스냉방으로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 고생했다.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버티지만 심하게 아파서 동네 병원엘 갔다. 분명히 9시부터 진료라고 쓰여 있었는데 의사는 9시 30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도 간호사들은 분명한 대답을 피하고 실실 웃기만 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오실 거예요.

나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이없는 대답이 날아왔다.

-오시는 시간이 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아마 10시안에는 오실 거예요.

-아니, 한 시간씩이나 늦는다고요?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아마?

환자들은 아파서 온 사람들이다. 아프다는 것은 다급한 상황을 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환자의 마음부터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치료는 약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로 환자를 취급하는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누가 묻지 않으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변명도 썩씩 삼켜버리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고객은 왕이라고 외친다. 고객을 졸도시키고 까무러치게 감동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다. 하긴 분통을 터뜨려서 졸도를 하게할 수도 있겠다. 졸도는 졸도니까.

유기농이라고 해서 큰 맘 먹고 비싸게 구입한 건강식품, 알고 보니 화학물질이 첨부돼 있었다. 에그머니나, 이를 어찌? 아이들에게도 듬뿍 먹었는데... 향의를 해도 눈썹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셔야죠. 그것은 소비자의 기본 아닌가요?

어느 누가 그런 좁쌀같은 글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산단 말인가! 복장이 터지고 속이 상하지만 어찌나?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의할 문제가 안된다는데! 나의 달러를 탕하면서 그냥 물러서버린다.

그리고 정치쪽을 한번 바라보자.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목청을 높인다. 국민을 하늘로 섬기겠습니다.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실굽실거린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어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스스로 하늘이 되어버린다. 물론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스스로 강해져라!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고 아마도 전철이나 버스는 또 더워서 답답할 것이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져야만 한다. 날마다 타의적으로 강해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눈 크게 뜨고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 입술로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을 바라보면서도 '오죽하면 저러고 살겠는가' 하며 이해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극기훈련 & 인격수양'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불량식품을 스스로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품박사가 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건강이 나빠진다. 모든 것을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렇다. 거꾸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 방긋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아, 행복한 한국인이여! 아, 복도 많은 한국인이여! 🌈





다산이 사상을 가다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필에 몰두했던 다산초당(전남 강진)



영원한 스승이 머무는 다산유적지를 찾아서

강진 & 남양주

| 글 * 사진 유연태 여행 작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유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전라남도 강진군 두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유적지는 다산이 태어난 곳이자 유배 생활을 마친 뒤 노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한 곳이며,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의 유적지는 다산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곳이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다산의 유적지를 즐겨찾는 이유는 그가 '선비다움을 실현한 영원의 스승'이었으며 '전방위적 지식경영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개혁 주의자'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강진 땅에서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을 만나다

다산은 마흔 살이 되던 1801년부터 신일곱 살 때인 1818년까지 강진 땅에서 유배시절을 보냈다. 스물두 살에 초시에 합격, 성균관 유생이 되고 홍문관 수찬, 경기도 암행어사,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낸 다산이 유배를 당한 이유는 천주교 박해로 치장된 정치적 사건인 1801년의 신유사옥과 황사영 백서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셋째 형 정약중은 죽임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살이를 떠나야 했다.

먼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강진으로 유배된 다산은 동문 밖 밥집 노파가 내준 집에 '사의재(四宜齋)'라는 당호를 붙이고 4년 간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사의'란 '맑은 생각, 단정한 용모, 과묵한 말씨, 무거운 행동'을 뜻한다. 이 기간 중 <상례사전>의 일부와 2천자문인 <아학편훈> 등을 집필했다. 1805년 겨울에는 강진을 뒤의 보은산에 있는 고성암 보은산방으로 이주, 주역을 연구했다. 1806년 가을부터는 제자 이청(李淸) 학래(學來)의 집에서 살았다. 강진 유배생활 8년째인 1808년 봄, 마침내 지금의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진만을 내려다보기에 좋은 위치의 천일각



다산 생가에 걸린 여유당 현판(경기도 남양주)



다산유물기념관에 재현된 거중기 모형

굴동마을 숲 속에 위치한 다산초당으로 가기 전 여행객들이 팔히 들러야 할 곳이 다산유물기념관이다. 다산의 영정, 연보, 가계도, 학통, 다산의 일생, 다산의 업적과 유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수원화성 건립 시 다산이 발명한 거중기 모형도 실내에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기념관 관람을 마친 여행객들은 발걸음을 다산초당으로 돌린다. 숲길 초입에서는 다산기념사업회에서 펴낸 <전환기에 다시 보는 해설 목민심서>를 팔기도 한다. 굴동마을을 품은 만덕산(409m)은 차나무가 많아서 다산으로도 불렸으며 정약용의 호 다산은 여기에서 유래됐다.

다산의 사상이 완성된 곳 '다산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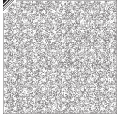
소나무, 대나무, 동백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한참 올라가면 서암, 다산초당, 동암, 천일각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다산초당은 해남 윤씨 집안사람인 굴림처사 윤단의 산중 별채였다. 다산의 모친이 공재 윤두서의 손녀이고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 굴동마을 해남 윤씨들은 다산의 외가쪽 친척들이었으니 다산을 자신들의 초당으로 초빙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정약용은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초당의 좌우에 동암과 서암을 짓고 자신은 동암에서 주로 기거하며 독서를 하고 집필을 했다. 서암은 윤단의 아들과 손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의 거처로, 초당은 교실로 활용됐다.

다산초당이라는 안정적 거처를 얻게 된 다산은 이곳에서 유배가 풀릴 때까지 머물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집필을 완성하거나 초고를 만들었다. 목민심서는 1818년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완성시켰고 흙흙신서는 1819년에 완성됐다. 목민심서 서문에서 다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자의 학은 반은 수신修身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牧民, 즉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목하는 자들은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지를 모른다. (중략) 이에 우리나라의 켜만 역사, 자 집과 여러 서적을 통해 옛날 사목들이 목민한 자취를 뽑아 차례로 편성했다. (중략) 또 이것을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목민의 마음은 있으나 몸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위정자들과 관리들, 경영인, 지식인들은 목민심서를 가까이 놓아두고 가슴으로 새겨 읽는 것은 아닐까.

다산이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켰던 공간인 다산초당은 1958년 강진 다산유적보존회가 복원해놓았다. 다산초



당 현판과 동암에 걸린 보정산방정약용을 보배롭게 모시는 산방이라는 뜻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긴 것이다. 다산의 손길이 닿았던 정석(正石, 다산이 손수 새긴 글씨), 다조(多調, 부뚜막), 약전, 연지 등은 '다산 사경'으로 꼽힌다.

책을 읽다가, 왕성하게 집필에 몰두하다가 다산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 산책을 즐겼다. 초당의 동쪽 산마루(지금의 천일각 자리)에서 흑산도로 귀양간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기도 했고 내친 걸음에 백련사까지 찾아갔다. 천일각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강진만 바다는 물론이고 완도 쪽 다도해도 시야에 들어온다. 만덕산 백련사에는 혜장선사(1772~1811)가 주석하고 있었다. 다산은 자신보다 열 살 연하의 혜장선사와의 만남을 통해 토론을 나눴고 유배의 아픔을 달랬다. 또한 차를 알게 됐고 초의선사(1786~1866)와도 교류하게 됐다. 오늘의 여행객들도 다산과 혜장선사가 나란히 걸었을 초당과 백련사 간 숲길을 거닐고, 만덕산 등성이를 서너 굽이쯤 돌아가며 두 위인의 우정을 생각하고 사유의 교류를 짐작해본다. 두 명소 간의 거리는 도보로 40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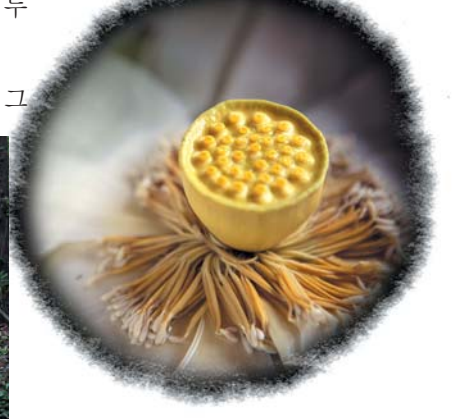
백련사 주변에는 차나무가 많고 동백나무도 많이 자란다. 3천여 평의 산비탈에 빼곡히 자리 잡은 1,500여 그



다산이 태어나고 여생을 마친 생가(경기도 남양주)



다산초당과 백련사 간의 숲길 산책로



루의 동백나무들은 수령이 3, 4백년을 족히 넘는다. 만경루, 대웅보전, 칠성각, 응진당 등을 답사하고 동백숲도 감상한 후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사채 아래의 선다원 찻집에 들러 백련차나 작설차, 솔잎차 한 잔 마시고 풍경소리를 감상하거나 강진만을 내려다보는 여유에 빠져본다.

다산의 문학관을 느끼고 싶다면 남양주 다산유적지로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유적지에는 생가 '여유당'과 묘소, 사당, 동상, 기념관, 문화관 등이 있어 한 자리에서 다산의 일생을 만나보기에 좋다. 다산이 살던 집 뒤로는 그의 묘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팔당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화관에는 아들에게 보낸 다산의 글이 적혀 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시가 아니면 시가 될 수 없다.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전장(典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 않는 시를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 있다. 요즈음의 문학과 얼마나 다른가. 무조건 옛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팝콘이나 껌보다 돈 주고 사기 아까운 문학이란 것과 다산의 말이 너무 거리가 먼 것에 왜 마음이 쓸쓸해지는지 모르겠다.

다산은 한때나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뜻을 펼칠 수 있는 시절을 보냈다. 비록 살아생전 영화를 다 누리지는 못했어도 사후에 다산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도 드물다. 먼저 깨닫고 좀 더 지혜로운 자로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 다산은 너무 잘 알고 부지런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

여행정보

강진군 다산유물기념관 061-430-3906
강진군 백련사 종무소 061-432-0837
남양주시 다산유적지 031-590-2481

가는길

강진군 다산초당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영산호
하구둑→2번 국도→강진군 성전면→
강진읍내→다산초당과 백련사
남양주시 다산유적지
올림픽대로→팔당대교→조안면
마현마을→다산유적지

숙소

강진군 : 프린스모텔 061-433-7400
남양주시 : 컨트리모텔 031-591-1521

맛집

강진군
흥진식당(한정식, 061-434-3031)
남양주시
황토마당(장어구이, 031-576-8087)



출판계여!

파워 블로거에

집중하라

블록 열풍

Book + Blog



| 글 박주연 뉴스메이커 기자 * 일러스트 홍종모

블록은 책book과 블로그blog를 합쳐 만든 말로 블로그에 쓴 글을 출판한 책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불었던 바람! 블로그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에서 블록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젠 블로거를 찾아다니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출판사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 블록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리나 인테리어, 여행 분야에서 특히 강세다. 출판과 블로그의 만남, 블록 열풍을 들여다보자.



* 블로그(Blog)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media).

생활정보면에서 두드러지는 新 트렌드


국내에서도 블로그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로 요리, 인테리어 등 생활정보 방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 '나물'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김용환 씨의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는 대표적인 요리블록이다. 차취생인 저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 노하우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고, 이것이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주부생활 17년차인 현진희 씨가 자신의 블로그 '로즈의 풀하우스'에 올린 요리 노하우를 책으로 펴낸 <베비로즈의 요리비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로즈의 풀하우스'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5,000명에 달하는 인기 블로그이다. 또 주부 문성실 씨는 블로그 '문성실의 맛있는 밥상'에 올린 글을 토대로 이미 4권의 책을 펴냈다. 이밖에 <예성맘의 우리 아이 10년 밥상> <후다닥 아이밥상> <맛을 아는 여우들의 홈베이킹> 등의 저자도 모두 인터넷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스타 블로거들이다.

인테리어블록으로는 <5만원짜리 인테리어>가 유명하다.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를 통해 값비싼 가구나 소품 없이도 예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블로거 '레테'가 낸 책이다.

독자가, 저자가 되는 또 다른 출구

블록의 소재는 생활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면서 2년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생활기를 쓴 김현근씨는 <당그니의 일본 표류기> <도쿄를 알면 일본어가 보인다>를 출판했다. 또 영어블로그 '테크노김치'로 지난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한 김태우 씨는 최근 인터넷경제학을 다룬 <미코노미>를 펴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잊기 위해 떠난 여행 속 자신의 사진과 생각을 담은 글을 블로그에 올려 폭발적 관심을 끈 회사원 박성빈 씨도 책 <그리우면 떠나라-Nova>를 펴냈다.

블록을 선도하는 것은 여성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쓰는 여성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비율도 42.1%로, 남성보다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블로거를 일컫는 '와이프로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와이프로그를 포함한 여성블로거들은 요리, 육아, 인테리어 등 일상정보에서부터 연애, 직장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루나파크>는 카피라이터인 저자가 자신의 블로그 '루나파크'에 매일 올리는 일기가 네티즌에게 인기를 끌면서 낸 블록이다. 저자는 만화를 통해 자신의 직장생활과 일상을 재치 있게 그려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블록의 인기는 한동안 식지 않을 전망이다. 독자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노하우 등을 친근한 필체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검증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출판사의 고민은 당연히 '어떤 책을 내면 잘 팔릴까'다. 흥행성을 인정받은 스타 작가들에게 앞 다퉈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그래서이다. 장기간되고 있는 출판계 불황 속에서 그나마 스타작가의 작품은 일정 부수 이상의 판매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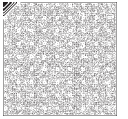
그런 출판관계자들의 시선을 수년 전부터 끌고 있는 공간이 사이버 세상에서 수없이 명멸하고 있는 블로그이다. 생긴 지 만 10년이 된 블로그는 이제 전 세계 1억 2,000만 명, 국내 1,000만 명이 즐기는 1인 인터넷 미디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중에는 고정 독자만 수십만 명을 몰고 다니는 파워 블로거도 적지 않다. 출판관계자들이 공략하는 이가 바로 이들이다. 고정 독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블록 book'이다. 블록은 블로그blog와 책book을 합한 신조어로 블로그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 것을 말한다. 미국만 해도 베스트셀러의 20% 정도를 블록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밖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핑계로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하소연해야 할까. 비정규직 직원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정규직 근로자들도 악덕 기업주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일을 종종 당하게 된다.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밀린 임금 제대로 보호받자!

| 글 황선익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일러스트 양승용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우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신고}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이러한 지시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 한 후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다만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청구하는 금액^{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나중에 집행곤란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미리 회사 명의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권리

지급명령이든 일반 민사소송이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통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많이 제출한다.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월급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다른 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곧바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액수만큼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그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부당한 전직, 거부기간도 임금 지급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전직발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회사 측이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직발령을 내렸고, 또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의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을 내린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 전직 기간에 일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법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될 경우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국적의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정부가 기업주에게서 이를 받아준 뒤, 관련법에 따라 추방조치를 하고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예전에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

2008년도 한국 청렴도(CPI) 40위... 전년보다 3단계 상승

부패인식지수 5.6점... '95년 발표 실시이후 가장 높은 점수 기록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월 23일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순위 43위^{총 180개국}보다 3단계 상승한 40위^{총 180개국}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패인식지수 역시 지난해 5.1점보다 0.5점 상승한 5.6점^{10점 만점임}을 기록해 1995년 발표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0개국 중 22위로 3단계 상승하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 7.11점에 비해 1.51점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전체 평균은 4.02점으로 지난해 4.40보다 다소 하락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스웨덴이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는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얀마와 이라크도 1.3점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매년 수위를 차지했던 핀란드는 9.0점으로 5위에 그쳤고 영국은 전년보다 0.7점 떨어진 7.7점 16위로 CPI가 발표된 14년 동안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T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국제 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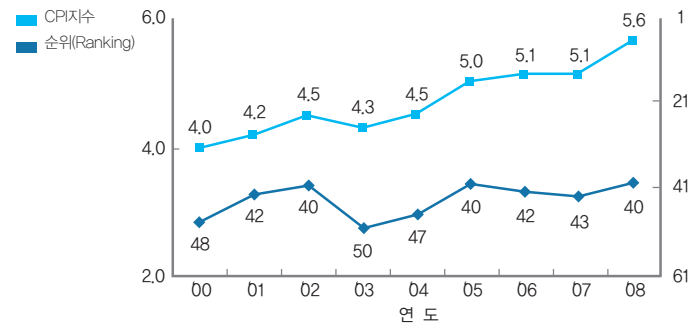
또한 권익위는 "국가 청렴순위 40위는 우리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산시켜 국가 청렴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변화 추이

Korea's CPI/ Ranking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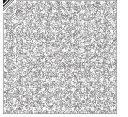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2007	1위(9.6점)	1(9.4)	1(9.6)	12(8.4)	20(7.2)	19(7.3)	25(6.7)	43(5.1)	41(5.2)	56(4.6)	61(4.2)
2008	1위(9.3점)	1(9.3)	5(9.0)	16(7.7)	18(7.3)	23(6.9)	28(6.5)	40(5.6)	55(4.8)	57(4.7)	58(4.6)

〈 아시아 주요 13개 국가별 CPI 현황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7	4위(9.3점)	14(8.3)	17(7.5)	34(5.7)	43(5.1)	34(5.7)	43(5.1)	72(3.5)	84(3.3)	72(3.5)	123(2.6)	143(2.3)	131(2.5)
2008	4위(9.2점)	12(8.1)	18(7.3)	39(5.7)	40(5.6)	43(5.4)	47(5.1)	72(3.6)	80(3.5)	85(3.4)	121(2.7)	126(2.6)	141(2.3)



Korea Ranked 40th in 2008 CPI, 3 Steps Higher than Last Year

Korea got 5.6 points, the highest mark since CPI began to be released in 1995.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released 2008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on September 23, and Korea ranked 40th among 180 nations in the CPI, compared with last year's 43rd. Korea also gained 5.6 points out of 10 points in 2008, which is 0.5 points higher than 5.1 points of last year. This is the highest record since CPI began to be released in 1995.

Korea's ranking rose to 22nd from 25th among 30 OECD member nations, and its points were found to be 1.51 points lower than the average points of OECD nations.

The average points of surveyed nations stood at 4.02, lower than 4.40 last year.

Denmark, New Zealand and Sweden ranked first with 9.3 points, while Somalia got the lowest ranking with 1 point. Myanmar and Iraq also joined the lowest ranks with 1.3 points.

Finland, who ranked first over the last years, slipped to 5th with 9 points, and Britain got 7.7 points^{16th}, 0.7 points lower than last year, which is the highest decline since CPI was released 14 years ago.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ommented that

“According to TI, Korea's CPI got the highest grade since 1995. It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s Korean government's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and clean culture has spread in Korean society.”

It also added that 40th ranking in CPI is far from our goal of integrity, so we will try to strengthen the system of punishing corruptive acts, and project our nation's positive image at home and abroad, thereby raising our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nations. 🌍

What i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CPI releas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each year indicates the degree of corruption in a nation's public 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at home and abroad. The more CPI is close to 0, the more corrupt a nation is. Three points in CPI indicates that corruption has spread in the society, while 7 points mean that there are little corruptive acts in the society.



억울할 때 두 드리 세 요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 씨는 화물의 운반과 창고출고작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건 운반 등에 필요한 지게차와 전동차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맥주회사 공장에서 제품과 공병 등을 운반하는 일을 김 씨의 회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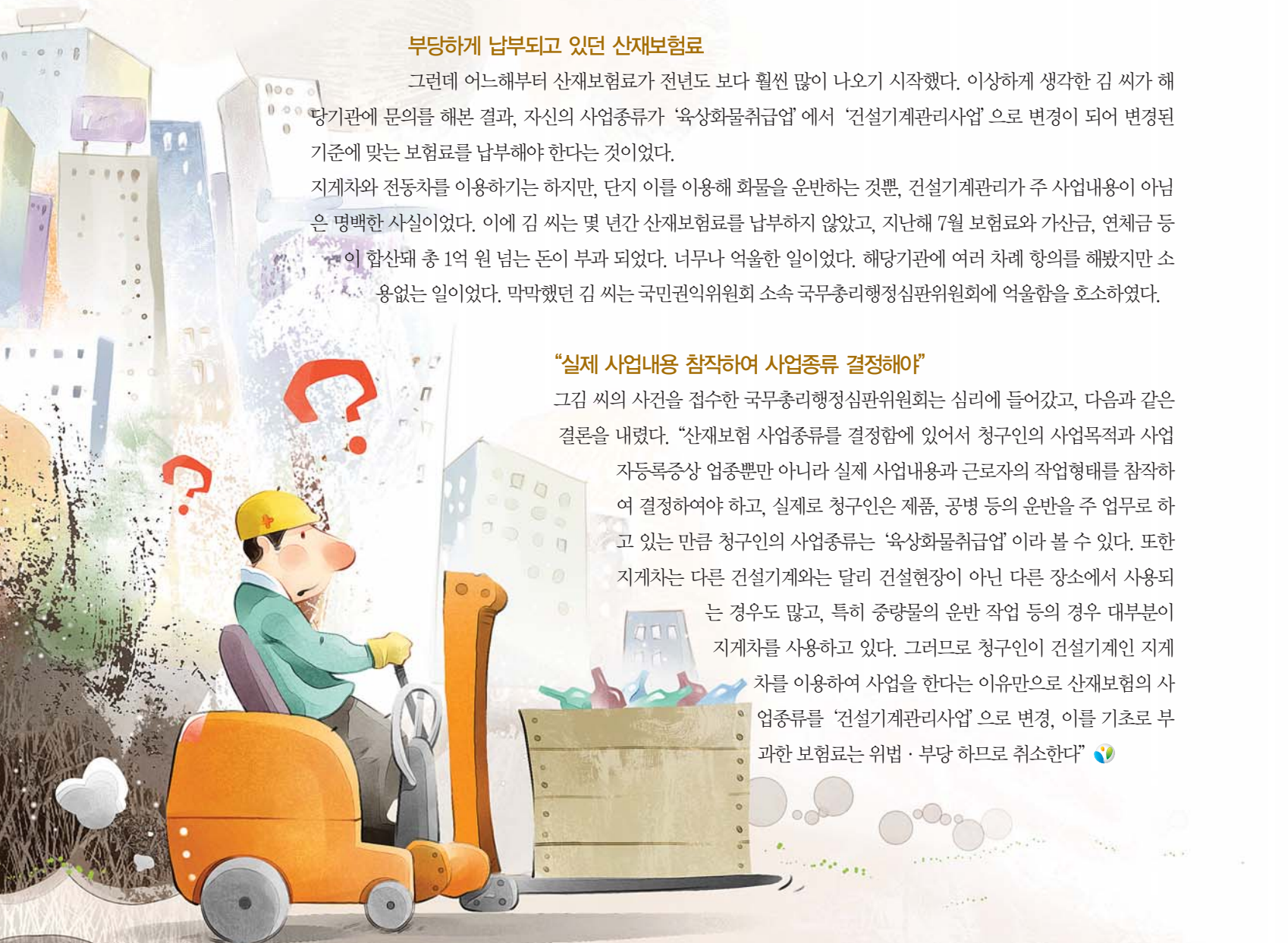
부당하게 납부되고 있던 산재보험료

그런데 어느해부터 산재보험료가 전년도 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김 씨가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자신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변경된 기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게차와 전동차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것뿐, 건설기계관리가 주 사업내용이 아님 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에 김 씨는 몇 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등이 합산돼 총 1억 원 넘는 돈이 부과 되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해당기관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막막했던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실제 사업내용 참작하여 사업종류 결정해야”

그김 씨의 사건을 접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에 들어갔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사업 자동등록상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은 제품, 공병 등의 운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게차는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중량물의 운반 작업 등의 경우 대부분이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 이를 기초로 부과한 보험료는 위법·부당 하므로 취소한다” 🌍





온라인 국민신문고



| 글 * 그림 만빵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는 재외동포, 국내거주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서비스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종종 민원인들의 감사편지가 접수됩니다.
국민들의 감사편지가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감사편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날아든 네팔 장모Neten Zangmo 부탄 부패방지위원장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온 감사 편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부탄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저희 연수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훈련센터에서의 생산적이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연수를 마치고 부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다는 보고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연수생들은 연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들의 해박한 전문지식과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권익위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에도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연수생들은 연수를 마친 후, 교육 내용의 즉각적인 이행과 역량개발을 위한 세부 활동 추진을 위해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와 연수생들은 이러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탄 부패방지위원회ACC가 믿음을 주고 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부패 동맹을 구축하며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희 연수생들에게 보여준 격려와 환대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익위 직원 여러분, 감사님, 연수과정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연수생들은 앞으로도 부탄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네팔 장모Neten Zangmo



평화의 얼굴

글 장석주
시인 · 국악방송(FM 99.1Mhz)
‘장석주의 문화사랑방’ 진행자



『평화의 얼굴』 / 김두식 / 도서출판 교양인 / 2007

〈평화의 얼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다.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시종일관 뜨거운 옹호로 읽는 이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항상적 ‘전시 상황’이며, 국방의 의무를 그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병영국가’ 체제인 이 나라에서 내놓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기독교 소수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간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고, 평생을 전과자로 낙인찍혀 이 사회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병역법과 법령을 고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입대를 거부한 700~800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간다. 우리 사회에

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산다는 것은 소수자로 산다는 뜻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졸^{高卒}자, 특정 지역출신인, 장애인, 동성애자, 노숙자, 농어민 등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주변인, 비주류들이다. 이때 소수자^{minority}란 수적 열세에 있는 집단이 아니라 척도의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집단이란 뜻이다. 소수자란 ‘표준의 결정’이라는 권력을 가진 다수자^{majority}의 영토에서 탈주하는 자들이다. 아무리 많은 수라 하더라도 척도의 바깥에서 따돌림과 억눌림의 상태에 있다면 소수자에 속한다.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배제와 차별과 불평등이라! 주홍글씨를 가슴팍에 새기고 말없이 죽어자임을 뜻한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다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로 불려야 합니까?”라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양심에 따른 거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제 양심에 따른 대가로 법이 정한 바 감옥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저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웃의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라는 양심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뿐이다.

왜 우리는 이들,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총을 들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병역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확대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2006년 12월에 유엔 인권위는 “한국 정부는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허용되어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법과 관행은 언제든지 나의 인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에 무관심하고 불관용한다면, 우리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타인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권리인 까닭이다. 🌍

ACRC NEWS

2008년 8월 22일 10면 (사회)

“식품업 종사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내년부터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와 종업원 등은 사전에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 관련 업종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해 장티푸스, 패혈증,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

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개시 이전에, 종업원은 영업종사 이전에 각각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시기를 명시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종사자 역시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식품업무를 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2008년 8월 20일 02면 (종합)

“국민의견 수렴후 기업규제 대폭 개선”

국민권익위 “행정규칙 1069건… 9월말까지 의견 접수”

국민권익위는 19일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전체 행정규칙 1,069건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을 벌여 10월 중으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sml17@acrc.go.kr, 전화 02-360-6639)을 통해 기업과 경제단체, 일반 국민들로부터 규제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개선을 검토 중인 대상 법규는 지식경제부 소관의 고시 439건 훈령 117건 예규 19건 공고 94건, 중소기업청 소관의 고

시 66건 훈령 46건 공고 115건, 특허청 소관의 고시 36건 훈령 109건 예규 20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법규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규정 ▲과도한 규제나 진입 장벽 등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 비용을 덜어주고, 업무 처리기간과 서류 제출 횟수 등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호섭 기자 bormal@chosun.com

朝鮮日報

2008년 9월 12일 10면 (사회)

“의료급여 지연, 이자 줘야”

권익위 “중소 병·의원 경영 어려워”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료기관에 당사자를 대신해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 주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576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4430억 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 과납한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 지연이자 지급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인옥 기자 pi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008년 9월 16일 14면 (사회)

내년부터 1종 운전면허 취득 청력기준 낮춰

내년부터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dB(데시벨)에서 70dB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dB에서 70dB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르면 시일 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청력 기준을 70dB로 완화할 경우 청각장애인 29만 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4000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청력 70dB까지는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임원기 기자 workis@hankyung.com

한국경제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08년 9월 3일 09면 (종합)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에 허리 휘는데...

국립대 기성회비로 '평평' 돈 잔치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월급 이외 136만원씩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금 10돈·전별금 지급



서울대는 2, 3급 교직원에게 매달 월급 수당 외에 13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교육지원비 명목이지만 어느 규정에도 없다. 다른 국립대 두 곳도 각각 행정지원비와 직무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매달 90만 원을 지급한다. 모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마련한 돈이다. 서울대 측은 2일 "국립대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충남대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보상금과 별도로 100만~2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한다. 이 학교는 또 교직원이 퇴직하면 금 10돈으로 열쇠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준다. 한국방송통신대도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기성회계 예산에서 편법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국립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당초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직원들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부당하게 전용되고 있다. 연 10%씩 가파르게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생과 학부모의 주름이 깊어지는 사이 교직원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들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도 기성회

비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A대는 학습안내와 자율학습 지도 명목으로 883명의 전 교직원에게 1인당 400만 원~684만 원씩 총 37억 여원을 지급했다.

B대는 사이버교육 등 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직원 31명에게 120만~160만 원씩 총 3,980만 원을 지출했다. C대도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씩 8억여 원을 지급했다. 기성회비로 총장의 저서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방 D대 정교수는 정해진 보수 외에 연 2,700만 원을, 부교수와 조교수는 각각 2,640만 원과 2,580만 원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명목상 연구보조비로 분류돼 있지만 연구실적이나 성과와는 상관이 없었다. E대는 교수들에게 교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에 따라 연 436만~475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 총납대 방송대 등 7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성회비 지급기준 강화 ▲기성회비 징수 법률근거 마련 ▲대학 재정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참여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한국일보

2008년 9월 26일 06면 (사회)

"소멸시효 넘긴 과태료 징수 부당"

권익위 "독촉고지 취소하고 재환급 마땅"...진주시 "재심 요구할 것"

진주시가 10년 이상 지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장을 발송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6월 18일 자 6면 보도>

진주시는 지난 6월에 1990년 1월 이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9만 명(총 22만 건)에게 납부독촉장을 발송했다. 이에 차량 압류처분 전에 패차한 민원인 7씨가 권익위에 낸 과태료 처분 취소 민원에 대해 '진주시는 과태료 독촉고지를 취소하고 민원인이 이미 낸 과태료는 다시 환급해주라'고 시정권고했다.

7씨는 1998년 진주시청으로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체납하다가 진주시가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폐차를 했지만 10년이 넘은 올 6월 과태료 독촉고지를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진주시가 과태료 부과처분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상, 더 이상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록 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체납 후 압류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에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22만여 건 중에서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방세와 성격이 달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 대법원 판례에도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만약 과태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6만 5458명(10만 538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분기에는 5건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1만 1500명(11만 2000건)에게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을 발송한 대상은 과태료가 적용된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액수로 는 8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독촉장 발송 이후 시정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는 '십 년 전에 낸 과태료가 또 다시 부과됐지만 영수증이 없어 입증할 길이 없다'거나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십 년 전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보았다'는 내용의 문의·항의성 글이 폭주하면서 발칵을 빚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경남도민일보



권익위, '교통사고 조사분야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는 지난 8월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교통사고 수사 및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에서 '교통사고조사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경찰청·15개 시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영창 사회민원조사단장 등 1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기관별 교통사고 처리실태를 상호 이해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

로 교통사고관련 민원의 효율적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워크숍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의 "교통사고조사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찰청 박한복 경위의 "교통사고 민원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과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조사관의 "교통사고 고충민원 처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에는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의의제기와 기관별 역할 범위'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02-360-37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코너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달의 QUIZ

- 출범 6개월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힌트 5페이지)
▶ ○○○○
- 청백리의 대명사로 '선비다움을 실현한 영원의 스승'으로 불리며 다산유적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은?(힌트 26페이지)
▶ ○○○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0월 20일)
독자퀴즈는 본문 내용 중에서 출제되며 다음호에 정답이 게재됩니다.

❚ **지난호 퀴즈 정답** 1번 정답 : 110, 2번 정답 : 굴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7+8월호 당첨자
(김다솔, 양승주, 남건우, 이소민, 전기홍)



● **김다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이번엔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왕팬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특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충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니 저도 메도해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 **양승주** 전남 여주시 학동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도움 될 만한 〈국민권익〉 기사를 스크랩 해 잘 보이는 곳이나 안방에 꼭 붙여놓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불평과 아이들의 볼멘소리가 잦았지만 지금은 서로 〈국민권익〉을 챙겨보는 가족이랍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많이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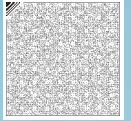
● **남건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언뜻 보면 홍보용 책자 같지만 책을 펼쳐보면 그 진실한 향기로움에 취합니다. 한번쯤은 다녀오고 싶었던 여행지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의 알찬 꾸밈에 지금도 저의 책꽂이 한곳에 당당히 〈국민권익〉이 자리합니다.

● **이소민**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국민권익〉. 특히 '희망볼룸UP'을 읽으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13평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용인 흥덕지구 의 아파트도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이겠지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서서 힘써주세요.

● **전기홍** 경기 시흥시 도당동 가식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많아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 중 '우리가 간다-현장 민원 상담 서비스'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상담을 해드리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신 [국민권익 이동 상담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희망볼룸 UP!〉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 수기를 e-mail(junmin79@acrc.go.kr)이나 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다양한 체험수기로 이루어집니다.

〈Thanks letter〉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의 감사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2008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깨끗한 청렴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2008. 10. 26(일) 13:00~16:00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논 술 주 제 : 반부패 · 청렴관련 소재

예) 청렴한 사회, 청렴윤리의식,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등

논술주제는 행사당일 발표 (시험관리본부에서 문제지 개봉)

참 가 대 상 :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신 청 기 간 : 2008. 9.16(화) ~ 10.8(수)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주 관 기 관 : 국민권익위원회

시 상 규 모 : 최우수상 1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장려상 3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 및 장학금 30만원

※ 입상작품은 책자에 발행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유로 함

문 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 02-360-6553~6561 / Fax 02-360-6865)

참 고 사 항 : 추천서식은 청렴교육센터(<http://edu.acrc.go.kr>)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